

귀향, 정착과 공생 : 변경 마을에 울려퍼지는 융합의 하모니

- 변경의 작은 마을 삼합진에서 듣는 향촌 진흥의 생생한 노래 (1)



▲ 상쾌한 공기와 목가적인 풍경이 고요한 힐링을 안겨주는 북흥촌, 이 마을에도 커피숍과 민박이 들어서며 들썩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에 찍은 북흥촌의 정경이다.

▶ 1 면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영항농산 품합작사를 설립했다. 단순히 농산품을 대리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거 광고회사에서 일한 적 있는 경험을 살려 '왕홍 마케팅'과 틱톡 라이브 방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홍보를 꾀했다. 또한 등급 관리와 고급화 포장 등을 통해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편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믿음으로 지역 농산품의 브랜드화에 주력하고 있다.

"촌간부를 비롯해 학서촌민위원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우리 촌민들의 협력 덕분에 지혜를 모아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힌 김철규, "아직 신생 소기업이라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단계여서 데이터로 보여줄 만한 큰 성과는 내지 못했다."며 겸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촌민들 손에 적치되어 있던 사과배나 입쌀을 사들여 대신 판매

주어 촌민들의 판매난을 해결해준다든가, 고급화 제품 전략을 꾸준히 추진해 학서촌 특산물의 시장 인지도도를 높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노력은 수자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값지다고 동네 사람들은 입을 모아 고마움을 표했다.

더우기 그의 노력은 이러한 성과와 함께 촌민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냈다. 학서촌 제 1 서기 진철송은 "김철규 촌주임이 앞장서서 노력하는 모습이 마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그의 선도적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 여러 민족 공동체, 소통과 협력으로 다지는 조화

취재를 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바, 이렇듯 곳곳에서 꽃을 피우는 삼합진의 변화는 개인의 노력만이 아니었다. 다양한 민족이 함께 어우러진

협력의 결과물이라는 걸 길림성식량 및물질비축국에서 파견된 진철송 제 1 서기의 입을 통해 료해할 수 있었다.

진철송 제 1 서기는 조선족이 대부분인 학서촌에서 유일한 '한족 간부'이다. 그런 그가 기자의 취재에 응하면서 제일 먼저 건넨 한마디가 바로 "이 곳에서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다."는 것이었다. 취재 도중에도 그는 소통의 힘을 거듭 강조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과 언어상의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3년 함께 생활하다 보니 이제 손짓만 봐도 뜻을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마을 촌민들은 저를 외지에서 온 파견 간부로 생각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으로 생각해준다는 겁니다."

이러한 소통과 협력은 학서촌의 다민족 대학생 자원봉사자팀 (다우르족, 좡족, 투자족, 만족, 한족 구성)의 일상에서도 생생하게 드러난다.

한번은 마을의 한 77세 독거로인이 급병으로 쓰러졌는데 촌 간부와 전역 군인, 이웃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외지에 있는 로인의 가족과 연락을 취하는 한편 한밤중에 로인을 병원에 호송하고 밤새 번갈아가면서 로인을 돌봐주었다는 훈훈한 미담이 있다.

이 로인의 아들은 "저는 선이 넘었지만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되어 어머니 병간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들보다 주변 분들의 정성이 더 깊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감사 편지를 전했다. 고향 땅에 뿌리내린 따뜻한 공동체 문화 덕분에 타지에서 시름놓고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 마을의 많은 '아들'들이 입을 모았다.

이 마을에서는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끈끈한 유대가 이미 형성되었다. 젊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은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거나 말동무가 되어주며 '봉사자'보다는 '손자, 손녀'처럼 지낸다.

"순박하고 근면한 우리 마을 주민들의 정신에 되려 감동받았다."고 말한 진철송 서기는 "올해로 파견 임무가 만기되어 원 직장으로 돌아가지만 서로의 선한 영향력 속에서 나날이 조화로운 학서촌과 함께한 3년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학서촌은 길림성의 시범촌으로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현대적 향촌 진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두만강이 흘러 지나가는 이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더 넓은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 타향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삼합인'들의 창조력과 김철규의 농산품 브랜드화 노력 등 이야기는 삼합인들이 고향과 세계를 연결하며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보여준다. 그들의 노력과 성과는 개인의 성공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며 서로 융합되어 다민족이 조화를 이루고 융화하는 아름다운 사회적 풍경을 이루고 있다.

/ 유창진 김가혜 김영화 기자 / 영상 정현관기자

5 천만 구독자 블로거가 올린 조선족학춤 영상 큰 인기



최근, 틱톡 등 3개 플랫폼에서 구독자 총 5 천만명을 보유한 @강심천(江尋千)(구월)이 조선족학춤을 배우기 위해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찾았다. 그는 무형문화유산 관련 소재를 주로 다루는 창작자인데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인 조선족학춤을 주제로 짧은 영상을 제작하여 연변지역 민족문화의 매력을 전하며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조선족학춤은 학을 형상화한 전통 춤으로 연변지역 조선족 민족문화의 소중한 유산이다. 2008년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학춤은 가볍고 우아한 동작을 통해 미적 가치와 문화적 상징을 동시에 보여준다. 안

도현은 이 항목의 주요 전승지로서 그 기법의 보존과 전파 및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왔다.

구월은 학춤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살리고 전통 춤의 정수를 온전히 보여주기 위해 안도현문화관을 찾아 무형문화유산 체험에 나섰다. 그는 조선족학춤의 제 5대 전승인인 리영화로 부터 기초적인 춤사위와 호흡법, 정확한 동작과 자세, 춤의 문화적 의미 등을 체계적으로 배웠다.

또한 구월은 학춤의 혼을 진정으로 담아내기 위해 안도현 백화곡 등 지역을 찾아 촬영을 진행했다. 현재 이 영상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 길림성문화관광청

길림성미술작품전 3 개월간 열린다



4월 18일, '예운 관동·단청 길림-길림성미술작품전'이 길림성열여(悅如) 미술관에서 개막되었다. 이번 전시는 길림성문학예술계연합회에서 지도하고 길림성미술가협회와 길림성열여미술관이 공동 주최했다. 길림성 미술 창작의 풍성한 성과와 새시대 길림성 미술가들의 정신적 면모를 선보이게 되는 이번 전시 기간은 3개월로 그림과 글을 통해 길림의 이야기를 다채롭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길림의 지역 특색과 시대정신을 담아 장백산문화, 빙설문화, 민족·민속문화, 공업문화 등 지역 자원을 다양하게 조명한다. 중국화, 유화, 판화, 수채화 등 200여점의 작품이 세가지 주제로 나누어 전시된다. 당일 성내 대학교 교수와 학생, 전문 화가, 미술애호가 등 약 300명이 예술 감성으로 가득한 전시장을 찾았다. 동북사범대학교 미술학원 부원장 류복은 "이번 전시는 길림성 미술의 현재 모습을 잘 보여준다. 특히 판화는 전통에 주관적·추상적 표현을 더해 혁신적이다."라고 말했다. 미술 전업 왕신반은 "살아있는 미술 수업 같았다. 섬세한 붓질과 진한 감정이 앞으로 창작에 큰 영감을 줄 것 같다."고 전했다.

길림성미술가협회 관계자는 "이번 전시에 출품된 작품들은 주제가 분명하고 소재와 형식도 다양하다. 길림 미술가들의 깊은 예술 역량과 시대의식을 보여주며 동시에 길림지역 문화의 독특한 매력도 잘 담았다."고 말했다.

/ 길림일보

길림성내에서 모든 촬영 마친 영화 《열정의 시절》

4월 20일, 길림성당위 선전부와 길림성총공회에서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 《열정의 시절》(炽热年华)이 CCTV-6에서 방송되었다. 영화는 길림성 출신 여성 기업가와 노동자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당시 여성들이 겪은 도전과 성장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풍문연과 류적이 주연을 맡은 이 영화는 1990년대 탄광지역을 배경으로 길림성의 한 여성이 석탄산업에 도전하며 역경을 극복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동북지역의 시대적 풍경을 사실감 있게 재현했다. 촬영은 모두 길림성내에서 진행되었다. 주요 촬영지로는 길림시 길림대교, 교하시 신창진인민정부, 길림러법산국가삼림공원 등이 포함된다.

길림성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 영화는 그들의 열정과 노력이 어떻게 길림성에 활력을 불어넣었는지를 보여주며

산업 현장에서 한결같이 자신의 길을 개척해온 이들의 헌신을 따뜻한 시선으로 조명했다.

특히 영화 속 주인공의 깨끗한 모습은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당시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용기와 인내를 진실되게 전달했다.

/ 길림일보

图说 我们的价值观

富强 民主 文明 和谐

自由 平等 公正 法治

爱国 敬业 诚信 友善

与人为善 一路吉祥

陕西户县 王文吉 创作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